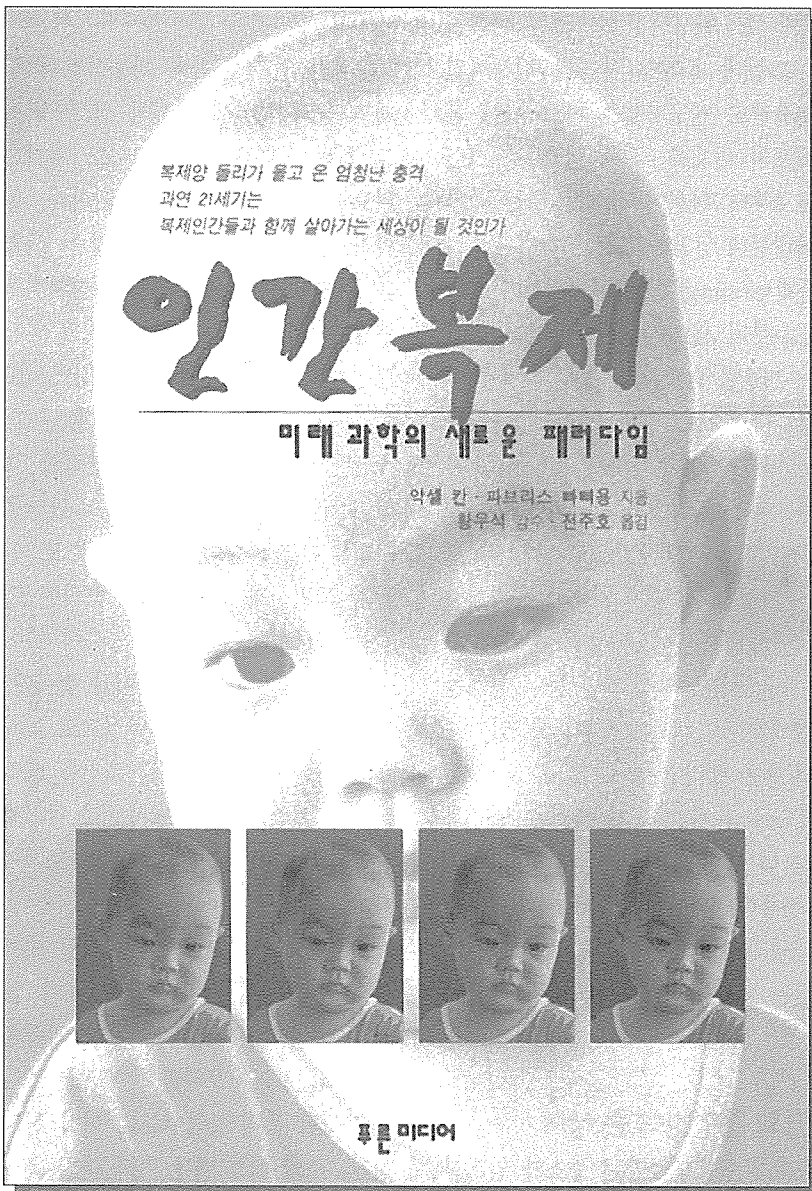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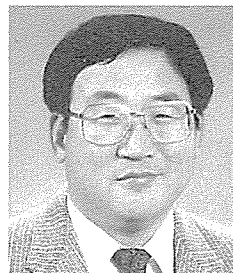


예정된 복제 인간의 탄생

어떻게 대처할까?



1996년 7월5일 금요일밤 영국에서는 복제양 '돌리' 가 탄생하여 미증유의 인간복제를 예고하고 있었다. '돌리' 복제가 알려진 후 로슬린연구소에는 자신들을 복제해달라는 편지가 수백통 답지했다고 한다. 실험목적이든 기타 다른목적이든 인간복제는 인간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다는 반대이견이 들끓어도 지금 누군가에 의해 그 실험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일종의 범죄로서의 인간복제를 분석하고 있다.



洪旭熹
〈세민환경연구소 소장〉



1997년 2월 23일 일요일, 영국의 주간지 「옵서버」는 과학잡지인 「네이처」에 게재될 글을 4일동안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어겼다.

이 잡지에 나온 정보는, 그쪽 방면과 관계있는 수많은 생물학자와 기자들이 약 두달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소문을 퍼뜨릴 생각을 감히 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것은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근교의 로슬린연구소에서 일단의 연구자들이 성숙한 유기체에서 추출한 분화된 세포로부터 처음으로 복제된 포유동물을 얻었다는 소식이었다.

인간복제 예고한 돌리양 탄생

1996년 7월 5일 금요일 한밤중에, 동물 임신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6킬로그램 이상 나가는 흰 도셋종의 양이 태어났다. 그 순간 그 탄생의 '아버지'인 이안 윌머트와 키스 캠벨은 세상모르게 자고 있었다. 삼페인이나 흥분의 도가니 따위는 없었다. 이 어린 암양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예고된 성공적 실험이라는 논리적 연장에 불과했다.

우리 인간이 포함되는 포유동물 무리에서는 난자와 정자가 합쳐진 수정란에서 시작하여 그 수정란 하나가 둘로 나뉘고 둘이 넷으로, 넷이 여덟로 다시 나뉘는 일련의 연속적인 세포분열로 마침내 하나의 개체 생물이 탄생한다.

그런데 수정란에서 세포분열이 시작될 때 인간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수정 후 5~6일이 지날 때까지는 각 세포들이 인체의 어느 부분으로든지 만

들어질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세포분열이 진전되면 그 이후의 세포들은 미리 예정된 어떤 특정한 신체 부분만을 만들 수 있다. 발생학자들은 전자의 세포들을 미분화세포라 부르고 후자의 세포들을 분화세포라 부른다.

따라서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분화 세포이다. 그리고 그것이 실험실의 인공배지에서 우리 몸의 체세포를 아무리 세포분열시켜도 절대로 완전한 인간 개체를 탄생시킬 수 없는 이유이다. 그런데 복제양 돌리를 탄생시킨 스코틀랜드 연구자들은 바로 이런 분화세포의 한계를 극복해서 바로 그런 세포로부터 완전한 한 개체생물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였다.

복제(cloning)란 바로 이처럼 분화된 세포로부터 새로운 개체생물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의미한다.

생물학적으로 양과 인간의 차이는 일반 대중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 않다. 따라서 양에서 사용되었던 기술이라면 약간의 변형만으로 인간에게도 적용 가능하다. 과거 가축의 종자개량 목적에서 처음 시도되었던 시험관 수정 기술과 인공임신 기술 등이 현재는 인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복제양 돌리 사건은 인간복제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1997년 2월 23일이 것처럼 중요한 날로 기억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인간의 존엄성에 큰 상처

돌리가 복제되었다는 뉴스가 알려진

후 로슬린연구소에는 자신들을 복제해 달라고 애원하는 편지가 수백통이나 답지했다고 한다.

이 '돌리의 동아리들'은 노화를 막기 위해 새로운 육체를 만들어달라고 하거나 사랑하는 이들의 '생명 연장'을 위해 복제를 희망한다고 복제 요구의 이유를 밝혔다. 저간의 사정이야 어떻든 인간복제를 원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얼마든지 널려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인간의 복제 가능성이 이렇게 대중의 눈앞에 확실히 전개되면서 그 찬반 양론에 대한 시비도 거세게 일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과학자, 철학자, 종교인, 정치인, 언론인 등 사회의 저명인사들이 이 논쟁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각국의 정부 부처와 의정단상에서, 국제기구의 협상장에서도 이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인간복제는 격렬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결정적으로 윤리적인 비판만을 불러일으킬 따름이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독립성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인간복제의 실천은 문명의 역사에 있어 중대한 도덕상의 퇴보를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복제를 전반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인간 조건을 타락시키는 위험 요소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물론 이 위험 요소의 대표적인 예가 생식복제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프랑스의 ‘생활과 건강 과학을 위한 국가윤리지문위원회’ 발표)

“실험의 목적(불임 치료, 이식 전의 진단, 조식 이식)이든 기타 다른 목적



이든 인간복제는 어떤 경우에도 모든 인간 사회에서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을 것이다.

왜냐 하면 이는 인간 기본권에 대해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종의 우생학적, 인종차별적 도태를 허용하기 때문에 인간의 평등 원칙에도 반한다. 인간복제는 인간 존엄성에도 어긋나는데 인간을 실험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유럽 의회 ‘동물과 인간복제에 관한 의결’)

“지금으로서는 공공 분야나 개인 분야나 할 것 없이, 또한 연구를 위해서든 의학 차원의 적용이든 체세포의 핵을 이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복제에 의한 아기를 만들어내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미국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 보고서)

미국선 인간복제재단 등장

이렇게 전 세계의 권위있는 기관들이 인간복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확실히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누군가에 의해서는 지금도 인간복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자기들을 스스로 라엘리안이라고 부르는 UFO 추종자 무리와 미국의 물리학자 리처드 시드가 주도하는 인간복제재단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라엘리안들은 인류가 외계인들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으며 예수는 그 외계인과 인간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인간복제가 인간이 외계인의 지식 수준에 도달하기를 열망하고 그 수단으로서 인간복제를 적극 지지한다.

그런가 하면 리처드 시드의 인간복제재단은 복제를 원하는 사람들의 후원금으로 인간복제를 실험하는 클리닉을 개설해서 이미 활동하고 있다. 시드는 자신이 하는 일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인간복제는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고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첨단 기술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처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 정도의 지식과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복제 내지 DNA의 재프로그램은 이런 의미에서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매우 간단한 논리죠.”(영국 BBC와의 대담)

이처럼 일반대중의 지지를 얻기 어려운 인간복제 시도만 제외한다면 의학적인 목적을 위한 인간복제 기술개발의 타당성은 현실적으로 무조건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한 시나리오의 하나를 들여다 보자.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의 세포 하나와 그의 부인(혹은 다른 공여자)의 난자로부터 하나의 배가 만들어지고 이 배는 여성의 자궁 속에 옮겨진다. 몇 달이 지나고 태아가 추출된다. 이 태이는 환자와 유전적으로 동일할 것이다. 따라서 그 태아의 뇌세포들을 분리해서 환자의 뇌에 이식해도 거부반응이 없을 것이다. 이같은 시나리오는 물론 골수나 간세포, 췌장세포 등 다른 장기들의 이식에도 해당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인도적인 목적에서의 인간복제라고 해도 그것이 인간 존엄성에 대한 침해라는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자연 법칙에 따라서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 인간의 기술로 태어나는 복제인간에 대해서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부여할 것인가. 만약 복제인간도 우리 여녀 인간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다면 그 인간의 운명을 그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결정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울 것이다.

둘리 탄생 후 기원 1년을 맞이하는 이 마당에, (둘리를 탄생시킨) 스코틀랜드인들의 발표가 있고 그 다음날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시작한 토론을 활성화하고 지식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듯하다.

우세한 분위기에 밀려서 혹은 침착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복제의 이론과 실행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이외는 달리 복제를 혐오스런 시도라고 보는 이들도 있다. 어찌 되었건 결국 인간 사회가 생식복제를 택하기로 결정하는 날이 오면 우리는 깊이있는 논의를 한 후에, 적어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러한 선택이 이루어진 것을 비난하고 걱정스러워 하게 될 것이다.

이 책에서 우리는 인간 생식의 한 방법으로서의 인간복제와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일종의 범죄로서의 인간복제를 분석해 볼 수 있다. 미래에 우리는 인간복제를 아무 대책없이 합법화하여 미증유의 범죄가 판치는 사회에 살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인간복제를 꼼꼼히 분석하여 대비책을 마련해 놓은 사회에서 살 것인가? 이같은 논의에서 이 책이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